

구분	전체 평균	효율적 농가(비용 총효율성 = 1)
대농구비/생산비(%)	5.052	7.217
쌀판매수입/농업총수입(%)	41.545	36.813
재배면적(m ²)	13,459	34,803
임차지비율(%)	41.439	53.121
고용노동비율(%)	5.817	7.465
위탁영농비/생산비(%)	13.124	12.722

쌀 농가의 경우 표본 수가 많아 2013년을 대상으로 이윤효율성을 계측하였다. 이윤효율성 계측결과 이춘수·양승룡(20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런 제약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본 및 가격위험 제약을 부과한 경우의 이윤효율성 값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본 및 가격위험 제약이 부과된 상황에서 소득보전직불제의 자본 및 가격위험 제약 효과를 반영한 경우 효율성이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농가가 직면한 경영상의 제약이나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효율성 계측결과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4-47> 2013년 쌀 농가 이윤효율성 계측결과

구분	제약 없음(S1)	자본 및 가격위험 제약만 존재(S2)	자본 및 가격위험제약 + 정책효과 제약(S3)
평균	0.591	0.834	0.827
표준편차	0.101	0.111	0.109
C.V	0.171	0.133	0.131
최대값	1.000	1.000	1.000
최소값	0.236	0.577	0.574
효율적 농가수	4	220	198
표본수	1,098	1,098	1,098

나. 콩 농가 경영효율성 변동 추이

콩 경영효율성 변동 추이를 보면, 비용효율성과 이윤효율성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비용효율성보다 이윤효율성의 감소폭(비용 총효율성 연평균 1.6% 감소, 이윤효율성 연평균 8.2% 감소)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비용효율성의 감소는 주로 배분효율성의 감소 때문으로 기술효율성은 증가 추세이다.

<표 3-4-47> 콩 경영효율성 변동 추이

구분	비용효율성										이윤효율성	
	총효율성		배분효율성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2008	0.277	2.100	0.615	4.607	0.451	2.375	0.675	3.295	0.690	2.894	0.077	1.086
2009	0.312	2.283	0.625	4.764	0.502	2.583	0.676	3.380	0.755	3.703	0.069	1.054
2010	0.225	2.097	0.599	5.094	0.379	2.261	0.584	2.844	0.684	2.780	0.056	0.935
2011	0.236	2.269	0.594	5.286	0.401	2.333	0.607	2.903	0.701	2.713	0.061	1.008
2012	0.178	2.132	0.461	4.728	0.388	2.351	0.557	2.625	0.741	2.955	0.036	0.939
2013	0.225	2.824	0.473	4.846	0.478	3.275	0.646	3.497	0.773	3.612	0.043	1.011
평균	0.242	2.284	0.561	4.887	0.433	2.530	0.624	3.090	0.724	3.109	0.057	1.006
연평균 증가율	-1.6%	7.0%	-4.6%	1.2%	2.5%	7.9%	-0.4%	2.5%	2.5%	6.4%	-8.2%	-1.1%